

專 門 人 이 되 자

近間에 各種 엔지니어링 會社의 設計分野의 勤務者와 大學院生 및 建物關係者들이 빈번히 우리 協會를 찾아와 그들 나름대로의 궁금한 點을 問議하곤 한다.

오늘날 防災業務가 設計實務者의 關心事가 되고 또 學界의 研究對象이 되고 있다는 것이 分野의 將來 發展을 위하여 眞心으로 歡迎할 일이라 하겠다.

消防法・建築法等 防災關聯規程은 材料,技術等の 急速한 發展으로 인하여 이에 보조를 맞추려고 빈번한 개정 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未洽한 點이 宿題로 남아 있다.

우리 協會가 擔當하고 있는 業務를 잠깐 살펴보면 防災의인 側面에서는 '86年 아시안 게임과 '88年 서울 올림픽 등 國際的인 行事를 앞두고 關係當局은 防災先進國 具現에 拍車를 가하고 있으며 그 一環으로 國家防災의 各種 制度的 補完에 대한 深重한 檢討가 現在 進行中에 있다. 아무쪼록 防災業界의 發展을 위하여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 協會는 지난 10年間 防災技術을 研磨한 결과 國內外的으로 눈을 조금씩 떠 나가게 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全國 7大都市에서는 火災豫防을 위한 點檢을, 京畿道 麗州에서는 防災試驗所 建設의 메아리 소리가 振動하고 있다. 또한 保險側面에서는 지난 '82年度 우리 나라 損害保險會社의 當期決算에서 赤字를 記錄하였으며, 海外 再保險 去來에서는 만성적인 逆調現象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 損害保險會社의 危險分析機能을 發展시키고 危險度에 따라 再保險 去來의 自律性 提高를 할 수 있도록 再保險 去來 規程을 危險管理 中心 體制로 改正하였다. 이는 付保物件의 危險管理를 徹底히 하여 損害保險의 體質改善을 시키려는 意圖에서 취하여진 結果이다.

協會가 危險管理制度의 核心業務인 付保物件의 “火災危險度調査”를 固有業務로 實踐하여 온지도 半十年이 넘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火災危險度調査 業務를 擴大하여 7大都市에 局限시키지 말고 全國的으로 實施, 海外 再保險 去來의 逆調 및 損害保險의 赤字運營이 되지 않도록 努力하여야겠다.

이와 같이 防災側面이나 保險側面에서 우리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自己가 맡은 分野에서 偉大한 先輩도 없고 專門家도 없다고 한탄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發展도 또 協會의 發展도, 그리고 保險産業의 育成도, 더 나아가 國家防災의 未來도 우리의 意志와 努力 如何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가 自己分野에서 一流 專門家가 되도록 努力하여야 할 때이다. *